

# 지리산 둘레길을 걷다

## 지리산마인드힐링여행



고정희 시집 <아름다운 사람 하나>에 실린 시들을 천천히 기억하며 걸어갔던 6월의 지리산을 7월에 다시 간다.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산청에 도착한 시간은 12시. 점심 먹고 느지막이 시작하는 도보여행이기 때문에 수철마을에서 시작해 거꾸로까만 화살표를 따라 방곡마을까지 간다. 18명의 여자들이 지리산 둘레길 마인드힐링 명상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 마인드힐링 명상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고, 자기 안의 긍정성을 돋우는 편안하고 행복한 명상이다. 힘겹게 걸가부좌를 틀지 않으며 오랜 시간 호흡을 지켜보게 하지 않는다. 그저 온전한 나를 누리며 행복하게 마음을

내려놓는 명상이다. 심지어 명상 도보 여행임에라.

햇살이 뜨거운 지리산 길에 나선다. 걷기 시작한 지 십분도 지나지 않아 등줄기에 땀이 차오른다. 물병이 비기 시작한다. 시멘트로 포장된 그늘도 없는 오르막길을 걸으며 고동재까지 가기만 하면 숲길이 시작된다고, 그러면 바로 새소리와 바람소리로 샤워를 하게 될 거라고 말해 주지만 더운 길은 의외로 길다. 사람들의 얼굴이 붉게, 뜨겁게 타오른다. 얼마나 남았어요? 어디가 고동재예요? 아무리 물어봤자 한걸음씩 걷지 않는 한 길은 그냥 줄어들진 않는다. 그 사이에 줄팔기 밭을 지나고 고사리 밭을 지난다. 걸어가며 한 알씩 딸기를 입에 넣는 ‘여자 어른 아이’들의 모습이 귀엽기 한량없다. 드디어 숲길이 시작되는 고동재

다. 고동재부터 쌍재까지 1.8킬로미터. 턱 밑까지 차오른 숨을 고른다.

“혼자 가기 좋은 길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바람 소리, 새소리 들으면서 천천히 걸어가세요.” 말 잘 듣는 착한 아이처럼 사람들이 열 걸음 넘게 떨어져 아무 말 없이 걸어간다. 그 숲에 들어서자마자 바람 소리가 마치 바닷가 파도소리처럼 쉼, 쉼 불어온다. 새소리 천지다. 두 팔을 벌리고 티셔츠 앞섶을 열고 욕심껏 바람을 맞는다. 앞에서 걸어가는 여자들의 마음이 짙이는 것 같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무언가’ 생각이 들었겠지, 군대 간 아들, 고 3달, 속상하게 하는 남편, 뼈격거리는 회사 일들,

칼로 우비를 입고 폭우 속으로 길을 나선다.

찾길을 피해, 농로를 따라, 마을길을 걸어 빗속으로 주저 없이 걸어가는 저 앞의 여자들을 향해 말을 건네 본다. “왜 그렇게 걸어요? 이 빗속에.” “너무 많이 걷는 거 아닌가요? 그만 걸어도 되지 않아요?”

신발은 이미 젖은 지 오래, 발가락들이 물 젖은 신발 속에서 쪼글쪼글 불어 가고 있을 터였다. 그림다. 대상도 모를 축축한 그리움으로 온 몸이 젖는다. 세 시간을 걸었을까. 비는 그치지 않고 비에 씻긴 온갖 풀들이, 버들이, 밭의 식물들이 신나서 춤을 추다 지친 것처럼 조용하다. 따뜻한 커피와 차 한 잔이 그리워 찾아가던 천막 같은 블루베



아프기 시작하는 부모님. 복잡하고 고단하리라. 그녀들이 각자의 생각 속으로, 마음속으로 마치 숲 속으로 들어가듯 깊숙이 들어간다.

개망초 꽃을 꽃은 꽃 밥상을 받고 나물과 채소로 풍성한 저녁밥을 먹는다. 꿀맛이란 말이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사실이다. 시간이라도 맞춘 것처럼 비가 내리고 사위가 어둡게 내려앉는다.

비 내리는 아침, ‘생명의 소리’에 맞추어 108배 절 명상을 한다. 기독교인이건 불교인이건 천주교인이건 그저 지금 여기, 나와 모든 생명을 향해 감사의 절을 올린다. 빗소리 때문에 절 한번 올릴 때마다 새기는 구절들이 잘 들리지 않는다. 그저 마음으로 듣고 헤아릴 수밖에. 각각의 색

리 농사짓는 집에서 이 여행의 정점 같은 노래와 시들이 터져 나왔다. 각자의 가슴 마다 시 한편을, 노래 한곡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마치 기적 같다. 한 소절씩 나누어 따라 외웠다. 서로 눈을 바라보며, 콧잔등에 맺힌 빗방울을 바라보며.

“나 하나 꽃피어/풀밭이 달라지겠냐고/말하지 말아라/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결국 풀밭은 온통/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CAI*

글 권혁란 | 전<이프>편집장. 새세상여성연합 여행디렉터  
- 새세상여성연합 지리산 둘레길 마인드 힐링 명상여행 참가